

만남과 말씀의 자리 (출애굽기 25:10-22)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 이후에 말씀을 받아야 한다. 그 자리가 그리스도이다. 언약으로 잡고 은혜 받기 바란다.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그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구태어 하나님이 죽으실 필요도 없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평소에는 모르는데, 어떤 결정적인 문제를 만나면 인정하게 된다. 인간의 문제는 간단한 육신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늘 문제라 하면 육신적인 것만 생각한다. 아주 근본적인 영적 문제에 걸린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저주를 받은 죄인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된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별로 감동이 없다. 아주 먼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현실감있게 들어왔다면 대단한 것이다. 그리고 저주를 받아서 죄인이 되었다는 것도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는다. 내가 왜 사단의 종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사단의 종이 되었다. 사람들마다 사단의 종이 되었다. 이것이 별로 감동이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확실하게 눈이 열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이 아주 특이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외에는 답이 없다는 답이 나게 된다. 그러면 그 인생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성경에 굉장한 많은 예가 있고 교회 사에도 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저주를 받아서 죄인이 되었다. 이것은 동화가 아니다. 이것은 굉장한 근본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이유가 이것이다.

이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도 별로 없다. 그러니 문제 속에서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과 안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하는 사이에 이런 것들에 대한 눈을 많이 뜨게 되었다. 감사한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당연히, 영원히 있어야 할 언약이 깨져서 온 일이다. 이런 것도 진짜 들어와야 하고, 정말 그러하니까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언약이 깨져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언약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것 말고는 길이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다시 세워진 언약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안 먹었으면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언약이 깨져서 사단의 밥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다. 본래 천사는 우리의 종이다. 사단은 타락한 천사이다. 천사도 우리의 종인데, 타락한 천사의 밥이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가. 이 근본문제 이후에 사단에게 밥이 안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모든 인간이 다 지옥이다. 예외는 한 사람도 없다. 여기에서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누리고 언약으로 잡고 도전하면 응답도 받게끔 만들어 놨다. 이 응답이 지속이 되면 인생이 달라진다. 응답이 없으면 인생이 안 바뀐다. 응답이 있어야 생각도 바뀐다. 그리고 복음의 문도 열린다. 그리고 237, 세계 복음화에도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유일한 축복이다.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복될 것이 없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천국의 사상으로 살아야 한다. 천국을 생각하며 그 기준으로 사는 것이 지혜이다. 땅의 사상을 맞춰 살거나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사는 것은 속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야 한다. 답은 하나 있다. 언약을 잡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 언약의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런데 언약을 잡았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언약의 예배로 응답 많이 받기 바란다. 인생 정복해야 한다. 놀려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제 당한 사람에게, 또는 답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그리스도면 된다. 이렇게.

1. 만남과 말씀의 자리

오늘 본문은 언약체를 어떻게 만들어라고 설명했다. 읽어보면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 언약체는 증거체라고도 하고 법체라고도 한다. 같은 뜻이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체와 속죄소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이 그림이 밑에 있는 게 언약체고 위에 천사가 있는 그 자리를 속죄소라고 한다. 이것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이 오늘 이야기 했다. 여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여기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였다. 증거체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리고 거기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 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의 이야기는 다 아실 것이다. 한번 백성들이 들고 있어났다. 거기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있었다. 어떻게 해서 아론 너만 특별하냐?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지파의 대장, 두령들을 모으라고 하였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각 두령들은 마른 막대기를 하나씩 가져오되 거기에 이름을 쓰라고 하였다. 아론도 니가 그 막대기에 이름을 쓰라고 하였다. 그것을 전부 모아서 지성소 안에 두고 다음날 찾아왔다. 그러고 보니까 다른 두령들의 막대기는 전부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 예만 싹이 나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 메시지가 무엇인가? 너희들은 같다고 생각하지만 내게는 다르다는 것이다. 아론은 내가 특별히 내가 선택한 종이라는 것이다. 너희도 선택했지만 아론하고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다. 아론은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다. 제사장.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나 항아리도 들어 있다. 만나는 생명의 떡,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이 안에 있는 세가지는 전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 때 언약체를 따라가라 했고 여기고 무너뜨릴 때도 언약체를 따라가라고 했다. 역사 일어난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이것이 성전 안에 이 그리스도가 지성소 안에 들어 있는 것이다. 그 이후에 성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있는 것들중에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는데 그것이 죄 씻음을 의미한다. 먼저 죄를 씻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속죄소인데, 여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죄사함 받는 자리이다. 이 속죄소가 언약체 위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라고 말하기 1,500년 전이다. 그 때에 이미 말해냈다는 것이다. 죄사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중요한 것 하겠다고 두가지 말하셨다. 그게 22절이다. 첫째는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겠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는 여기 하나 뿐이다. 전세계에서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을 만나겠다는 장소는 여기 하나 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거기 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거기 가면 하나님이 무조건 만나주신다. 그게 이 자리이다. 그게 속죄소이다. 그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 없이 살수 있는 피조물은 없다. 해와 달도 하나님 없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다. 마지막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모두 사라질 그 때에 모두 끝났다고 하면 하나님도 없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야 한다. 한번은 영원히 만나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순간이다. 그 다음 매일 만나야 한다. 24시간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계속 만나는 것이 할 일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한다. 인간은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전부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머리카락이 내 것인가? 손톱이 내 것인가? 내가 키웠는가? 단 한 개도 내 것이 없다. 전부 다 받은 것이다. 전부다 받은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받아야 한다. 그리고 매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정상이다. 이것이 인간이다. 그리 안하고 대충 산다면 그것은 자기 손해이다. 우리는 매일 만나야 한다. 이미 영원히 만났다. 24시간 만나야 한다. 딱 언약잡아야 한다. 이것이 24시이다.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 바란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런 저런 소리가 내 인생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문제가 일어나도 필요 없다. 이 언약으로 승리하고 도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한다. 안 받아도 된다. 지 혼자 살아도 된다. 그런데 신자가 그렇게 하면 손해를 많이 보고, 불신자가 그리 하면 지옥간다.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지도 못한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신다.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하신다. 믿는가? 언약으로 잡고 변하지 말아라. 인생의 답이 무엇이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이다.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평생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끝났다. 하나님이 매주 내게 말씀을 주시면 기적이 분명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일은 절대 없다. 이런 저런 어려움 있어도 말씀 받으면 반드시 해결된다. 매주 못받고 어쩌다 한번씩 받아도 기적 일어난다. 모든 인간이 다 그래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답이다. 완전 답이고, 기적의 답이다. 왜 응답이 잘 안되냐? 기도 많이 안해서? 그건 우리 옛날 소리다. 그리스도 언약 잡고 말씀 따라가면 기도 안해도 응답된다. 거기에 기도가 붙으면 금상첨화가 되는 것이다. 대역사 일어나는 것이다. 천지를 무슨 재로 만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온 우주가 생겨났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이다.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남자만 5천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누가 일을 할 것인가? 한번도 이런 적 없었다. 이런 것은 소설도 쓴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양심에 걸린다. 너무나 거짓말을 하는것이니까.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가 재료인가? 그 재료가 있어서 오천명이 먹고도 열두광주리가 남았는가? 그러면 재료 얼마든지 줄테니 니가 해봐. 그러면 누가 할 것인가?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어찌 포도주가 되었는가? 그 물이 재료인가? 그 물 얼마든지 줄테니 한번 만들어보라고 하면 누가 할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순간 알콜로 바뀌었다. 재료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된 것이라는 것이다. 진짜냐, 내가 정말 믿냐 여기에 승패가 걸려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진짜로 지금도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생명결면 거기서 끝내도 괜찮다. 다른거 하나도 하지 말고 말씀만 딱 잡으라. 인생 끝낼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기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이 자리가 지성소중에서 지성소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 그 자리가 속죄소이다. 그리고 언약궤는 그리스도의 덩어리이다. 우리가 어디서 죄사함을 받았는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 너무 중요하다.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난다. 죄사함 없으면 하나님 말씀 안주신다. 그래서 영접이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즉 속죄소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말씀을 주겠다는 것이다. 류목사님이 세계복음화 말씀을 받았다. 왜 그 말씀을 받았을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보통이 아니니까. 세계 복음화 말씀 받고 그리스도 안 것이 아니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뭐든지 먼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 언약 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누리고 언약으로 잡으면 하나님이 어느날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매일 받는 중에 평생을 두고 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인생 전체를 통하여 성취해 가신다. 내 인생이 그 때문에 의해 이끌어 가는 인생이 된다. 아무도 못 막고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상관 없다. 이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이 말씀 하나가 나를 속죄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다. 그때 모든 귀신이 역사해도 이 말씀 하나도 박살 내는 것이다. 귀신들 역사해도 필요없다. 이 말씀으로 패스하는 것이다. 나와 내 인생은 유유히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모든 노예된 것, 울무된 모든 것으로부터 계속 해방받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셨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재물도 가지고 나온다고 하셨다. 창세기 15:14에 예언하셨다. 출애굽기 12:35-26절에 성취되었다. 약 500년 이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누림으로 이 평생의 말씀, 곧 나의 사명을 받기 바란다. 이것을 하나님이 속죄소에서 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오직 한 자리에 있다. 온 세상에, 바로 속죄소이다.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인가? 전 세계에 한곳 딱 있다. 그 자리, 속죄소이다. 이 속죄소가 그리스도 언약이다. 그리스도 누리기 바란다. 오늘도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기 바란다. 이게 답이다. 어느날 내게 하나님의 평생의 말씀이 오면 더 구체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주신 말씀을 계속 언약으로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계속 역사가 일어난다. 모세는 창세기 3:15기록한 사람이다. 사단이 뭘지, 여자의 후손이 뭘지 다 알고 있다. 그것을 알고 있는것만 아니라 그 위에 말씀을 주셨다. 가나안. 아무도 못 막는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

세월이 지나면 이것이 우리의 천명이 되고, 내가 왜 복음안에 왔는지 깨닫게 된다. 그게 우리 소명이다. 이 말씀을 평생의 언약으로 잡고 그 말씀을 향하여 살아야 한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깊은 기도를 주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말씀 주신 그대로 살 사람이니까. 그 말씀을 성취해야 할 사람이니까. 말씀이 성취되려면 내 주변에서 여러 가지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때 주저앉으면 되겠는가? 더 일어서야 한다. 더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더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만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으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 없다. 그리로 가는 것이다. 그게 모세이고, 사도바울이다. 모세를 방해하는 인간들이 수없이 많았다. 계속 방해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환경적으로 어려웠겠는가? 안 잡힌다. 왜 거기에 잡히겠는가? 이 말씀을 내가 여기서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고백이 깊어지게 되어 있다. 우리의 영적 힘은 그리스도에 나오고, 그리스도를 누

리는 것이 깊어지면 더 깊은 힘이 나오는 것이다. 여기 말고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없다. 여기라고 하셨다. 전 세계에 한 장소, 거기 뿐이다.

히스기야 왕 잘 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하나 있다. 성전.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싶고, 회개할 일도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인데, 그래도 성전에 걸어서 갈려면 멀다. 그리고 농사도 지어야 하고 바쁘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대신에 산 높은데 제단같은 것을 만들어 놔다. 편리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려고 산위에서, 높으니까 하나님과 가깝다고 거기서 양잡고 그랬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를 개혁한 왕들은 그 산당을 놔뒀다. 히스기야는 전국에 있는 산당 조사해서 다 깨뜨렸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자리, 예배 자리는 한군데 딱 있다. 예루살렘. 니가 바빠서 못한다는 말이냐? 너의 곡식을 누가 관장하는게? 바빠 그래? 이런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은 악세사리이다. 시간 있으면 가고 없으면 산당 가는 것이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다. 히스기야는 다 깨뜨렸다. 히스기야가 말타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다 깨뜨렸다. 히스기야 대역사 일어났다. 18만 5천명 적군이 하루밤에 다 죽었다. 아시리아 왕이 금을 다 내놓으라고 해서 성전 기둥의 금을 벗겨서썩었다. 그런데도 안가서 어떻게 할수도 없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언약이 있으니까 기도한 것이다. 그날 저녁에 작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18만 5천명이 그날 밤에 다 죽는 것이다. 전멸하였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너도 히스기야처럼 살아라. 너도 진짜 내가 너에게 오직이냐, 아니면 악세사리냐? 목사는 이런 것을 강하게 이야기 하면 성도들이 시험한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시험되면 안된다.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악세사리가 되어서 세상과 하나님을 왔다갔다 해도 죽고 오직 해도 죽는데 왜 악세사리가 되어야 하는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모든 것 도전하고, 그 다음에 237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끝이다. 렘넌트, 청년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나도 나 어릴 때 생각해보면 천지도 몰랐다. 우리 시대에 우리보다는 여러분들이 낫겠지만 상당히 천지 모른다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미래를 모르니까. 그러니 그리스도 딱 누리는게 답이라는 것이다. 더 구체적인 답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근본 답이다. 그리스도는 영적 답이다. 더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 구체적인 답을 주시는 것이다. 그게 말씀이다. 개인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진짜 내게 언약 되면 나를 이끌자 없다. 사단 아무리 역사해도 필요 없다. 그것을 향하여 살기면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리하신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무엇이 소망인가?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떤 아이 되는게 소망인가? 세상의 것을 전부 다하고도 답이 되는 방법이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24시 되면 된다. 그리스도 없이 24시 안된다. 그리스도가 아닌데 24시 되면 그 사람 정신병 걸린다. 그리스도가 24시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24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신병이 안 걸린다. 이 24시를 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오는 결과가 25시이다. 25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가만히 있는데 영원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많은 응답을 보는 중에 시공간 초월을 보게 된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시공간 초월이다. 영적으로 역사했으니까. 그런데 시공간 초월이라는 단어를 그냥 기도응답 받는 것을 표현하려고 이걸 썼겠는가? 우리는 기도응답 많이 받는데 왜 이 단어가 안 나왔는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이 단어가 아니면 표현할수 없는 기도세계가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이다. 시공간 초월하고 있으면 보좌의 축복 누리는 것이다. 가만히 있는데 237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 말씀을 내가 여기서 주겠다고 했다. 그걸 받아야 한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기에 대한 말씀이다. 내가 니 인생이 시공간 초월하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여기에 오라, 내가 여기서 기다린다. 그 속죄소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 나는 내게 왜 말씀이 없습니까? 이런 분 있을수 있다. 기다리라. 어디서? 거기서 기다려라. 다른데 가 있으면 말씀 없다. 오직 그리스도 한분을 약속했다. 창세기 3장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 약속하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시공간 초월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해도 된다고 생각되면 그건 돌은 것이다. 시공간 초월이 되면 그걸 누리는게 아니다. 그 자체를 누리는게 아니라, 시공간 초월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시공간 초월정도로 누리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로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고 바르게 성경적인 메시지를 하는 분을 만나서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정확하지만 하고 정제하는게 아니라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 237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